

문항카드 3. 논술전형 인문 T3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논술고사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일요일 T3 - 인문계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 실용국어, 영어, 윤리와 사상,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공익(공동체의 이익), 사익(개인의 이익)
예상 소요 시간	10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빌로프 연구소에 남아 있던 연구원들은 사실상 정부의 아무런 지원도 없이 계속 일을 했다. 그들은 도처에 숨어 있는 굶주린 군중이 저장고를 털어 미래 세대를 위해 저장해둔 밀과 보리, 콩 종자를 죄다 먹어치우지 않을까 염려했다. 연구원들은 연구소의 견고한 벽을 바리케이드 삼아 불침번을 서며 종자를 지켰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훗날 그 종자들이 러시아와 세상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했다. 연구소 직원들은 40만 개의 종자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을 골라, 여러 개의 보관용 견본을 만든 후 상자 안에 넣었다.

이렇게 종자를 분산시킨 후 연구원들은 문을 닫아건 채 얼어붙을 것 같은 음습하고 차가운 지하실에서 남은 종자와 씨감자를 지켰다. 추위로 몸이 얼어붙고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교대로 근무하며 계속 종자를 보살폈다. 바빌로프의 동료 중 가장 헌신적이던 아홉 사람이 병으로 숨지거나 굶주림으로 죽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자신이 돌보던 씨앗을 먹지 않았다.

- 나브한, 『지상의 모든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

일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 생원은 그 논 일곱 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물론 한 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의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 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중략>

“나라가 다 무어 말라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 준 게 있길래, 이번엔 일인이 내놓구 가는 내 땅을 저이가 팔아먹으려구 들어? 그게 나라야?”

“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중략>

“일없네. 난 오늘벼툼 도루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길, 삼십육 년두 나라 없이 살아왔을려드냐. 아—니 글썸,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얼 줌 고마운 노릇을 해 주어야 백성두 나라를 믿구,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구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어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야?”

그러고는 털고 일어서면서 혼잣말로,

“독립됐다구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 조정래 외, 『고등학교 문학』

(다)

“나는 사형선고라면 질색입니다.”

리유는 타루를 쳐다보았다. “그래서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나는 자원 보건대를 조직하는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제게 그 일을 맡겨 주시고, 당국은 빼 버리기로 합시다. 게다가 당국은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여기저기 친구들이 있으니, 우선 그들이 중심이 되어 주겠죠. 그리고 물론 나도 거기에 참가하겠습니다.”

리유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그러니 좌우간 알려는 드려야지요. 잘 생각해 보셨나요?”

타루는 회색빛이 도는 침착한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보건대에 헌신한 사람들은 사실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대단한 칭찬을 받을 처지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야 할 일이 그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야말로 그때 처지로는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보건대는 우리 시민들이 페스트 속에 더 깊게 파고들도록 도와주었으며, 시민들에게 부분적이거나 질병이 눈앞에 있으니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납득시켰다. 이처럼 페스트는 몇몇 사람들의 의무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본연의 실체, 즉 모든 사람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중략>

“선생님.” 랑베르는 말을 꺼냈다. “나는 떠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겠어요.” 랑베르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는데 자기 생각에 변함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곳을 떠난다면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랑베르가 말했다. “그러나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때까지 한 마디도 없던 타루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만약 랑베르가 남들과 불행을 같이 나눌 생각이라면 행복을 위한 시간은 결코 못 얻고 말 것이니,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랑베르가 말했다. “나는 늘 이 도시와는 남이고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볼 대로 다 보고 나니,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나도 이곳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이 사건은 우리들 모두에게 관련된 것입니다.”

- 카뮈, 『페스트』

(라)

공동체주의자들은 공익의 독립적인 실체를 강조한다. ‘실체설’ 혹은 적극적인 인식론으로 지칭되는 이 입장에 따르면 사익에 우선하는 공익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공익은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를 위한 선(善)이다. 공동선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준거에 따라

공평성과 자비로움 등을 감안해 판단하는 가치기준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선의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 류지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재구성

(마)

사실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얼마나 그것에 기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개인은 오직 자신의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한다. 개인의 자본을 국내 산업의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느 산업 분야의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지에 관해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지역 상황에 근거하여 어떠한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개인에게 그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려는 정치가는 불필요한 수고를 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려는 것이다.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바)

인간은 행복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것을 궁극적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수단적 가치라고 한다. 공리주의는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리의 원칙에 따르면 형벌 또한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공리주의자들은 전체 가치의 증대, 곧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 이외에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사)

정보 참모: (서류를 내밀며) 역정보 공작에 투입할 장교의 인사 기록입니다.

사령관: (물리치며) 내가 직접 선발했네. 방금 나간 병사에 대해 귀관은 너무 무관심하더군.

정보 참모: 그 병사를…….

사령관: 영감을 주는 얼굴이야. 그 얼굴을 보는 동안 난 또 하나의 도박을 생각해 냈다. 아니, 이건 도박이랄 수도 없지. 아무리 유능하고 강직한 정보 장교를 역정보 공작에 투입한다고 해도 위험률은 매우 높다. 적의 정보 장교들도 바보는 아닐 테니까……. 그 병사로 하여금 자신이 역정보 공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 적에게 포로가 되도록 꾸미는 거야. 이제부터 참모 회의 때마다 그 병사는 내 어깨를 주무르면서 나와 함께 브리핑을 받게 된다. 물론 그 브리핑 내용은 모두 거짓이지. 그 거짓 브리핑 내용은 그 병사가 적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고스란히 적에게 제공되는 거야. (정보 참모를 지그시 본다.)

(클라리넷…….)

동쪽 나라 사령관실

(사령관과 정보 참모, 수색 중대장이 그들 앞에 서 있다.)

사령관: 적은 공격을 앞두고 아군에 대한 보다 광범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군 장병을 사로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수색 중대장은 적의 관측소에서 잘 보이는 곳에 그 겁쟁이 병사를 팽개쳐 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다.

중대장: 그곳에 혼자 남겨 놓고 오면 도망할 텐데요.

사령관: 도망하는 데도 최소한의 용기는 필요한 거다. 또 다른 질문은?

중대장: 없습니다.

사령관: 그럼 그 병사를 불러들일 테니까, 시나리오대로 잘해 보세. 전속 부관, 오장군 이등병을 들여보내게.

전속 부관: (밖에서) 옛.

사령관: 정보 참모는 눈에 안 띄는 게 좋겠군.

정보 참모: 예.

<이후 줄거리: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오장군을 역정보 공작원으로 보낸 동쪽 나라 사령관의 계략대로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공작에 투입된다. 이후 오장군은 서쪽 나라에서 사형에 처해지고, 머리카락과 손톱이 가족에게 전해진다.>

-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언어와 매체』

(아)

소를 키워 생계를 꾸려 나가던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에게 풀을 먹일 때 뒷동산에 있는 목초지를 이용했다. 목초지는 마을 사람들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였다. 마을 사람은 목초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키우는 소의 숫자를 점차 늘려 나갔다. 그 결과 소들이 먹는 풀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무성하던 목초지의 풀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사라져 가더니 결국 완전히 메달라 버렸다. 너무 많은 소를 목초지에 방목한 결과 더 이상 풀들이 남아 있지 않아 아무도 소를 키울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 정창우 외, 『윤리와 사상』

[문제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중심으로 (가)~(마)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문제 1]의 두 유형을 중심으로 (사), (아)를 비교하고, 그에 비추어 (마), (바)를 평가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제 3] [문제 1]의 두 유형을 적용하여 정책의 의도와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의 현상을 분석한 후, (다)에 비추어 코브라 농부에게 조언할 수 있는 것을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In Delhi, India, people suffered a proliferation* of cobras. One day, the governor of Delhi thought of an idea for reducing the number of cobras. He created a bounty* system, whereby people in Delhi would be paid for each dead cobra they could present to the authorities. This worked for a while, but eventually people figured out that it was easier and more profitable to bring in dead cobras they had bred and raised rather than trying to find them in the wild. The authorities caught on to this, and ended the bounty program. This was not what they intended. So what did all of the cobra breeders do with the leftover cobras? They let their cobras loose in the wild, which led to there being more cobras than when the governor started the bounty system.

* proliferation: 급증

* bounty: 포상금

3 문항 해설 및 출제 의도

T3 인문계 문항세트는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판·평가,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측정한다. 세 문항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총 8개의 (가)~(아)와 [문제 3]의 해결에만 사용되는 별도의 영어지문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문제 3]에 사용되는 별도 지문을 영어지문으로 배치한 것은 제시문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 기본적인 영어지문 이해 능력도 함께 측정하기 위함이다. 각 문항마다 개별적으로 위에서 기술한 능력을 측정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제시문의 핵심어,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분류, 연계하는 능력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별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다.

[문제 1]은 (가)부터 (마)까지 다섯 개 제시문을 읽은 후, 어떤 행위를 행하는 동기나 목적의 관점에서 우선시되는 것을 둘로 분류하고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할 것을 요구한다. 제시문을 ‘공익/ 공동체의 이익’과 ‘사익/ 개인의 이익’이라는 핵심어로 분류하고, 둘 중 어느 쪽을 우선시/중요시 하느냐에 따라 각 제시문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섯 개의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게 함으로써 핵심어 또는 핵심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이용한 요지 파악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제 2]는 추가 지문 (사)와 (아)의 사례를 통해 앞의 [문제 1]에서 분류된 ‘공익 우선’과 ‘사익 우선’ 입장의 부작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와 (바)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 (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사)는 전쟁의 승리라는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병사 개인을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이다. 이로부터 사익을 무시하고 공익만을 추구할 때 개인의 희생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요지를 파악해야 한다. 반면에 (아)는 개인들이 모두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해 키우는 소의 숫자를 늘리다보니 공유지가 황폐해져 더 이상 소를 키울 수 없게 된 사례이다. 이로부터 공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익만을 추구할 때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마)와 (바)의 입장과 요지를 파악해야 한다. (마)는 각각의 개인은 오직 사익만을 추구할 뿐 공익 증진을 의도하지 않으며, 각각의 개인이 사익을 충실히 추구했을 때 공익(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의도한 경우보다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익의 극대화가 공익의 극대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바)는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전체 가치의 증대, 즉 다수의 이익 증진이라는 명분이 있다면 소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공익의 극대화라는 목표에 비하면 사익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셋째, (사)와 (아)의 사례에서 도출한 내용과 (마)와 (바)의 입장을 논리적 정합성에 따라 연결하여 (사)를 근거로 (바)를, (아)를 근거로 (마)를 평가해야 한다. 즉, 다수의 이익 증진이라는 명분에 따라 개인이 희생된 사례인 (사)에 비추어 공익의 추구가 과연 사익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의 이익 극대화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지 않은 사례인 (아)에 비추어 사익을 극대화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 역시 극대화된다는 (마)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처럼 문제 해결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핵심어, 연결어 등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가독성 있는 서술을 진행하는지 또한 측정하는 것이 이 문항의 출제 의도이다.

[문제 3]은 영어 지문에서 제시된 ‘코브라 효과’로 알려진 정책 실패의 사례를 [문제 1]의 두 유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시문 (다)에 비추어 이러한 정책 실패에 하나의 요인을 제공한 코브라 농부에게 조언할 수 있는 바를 추론하는 문제다. 추론 과정에서 제시문 (다)를 활용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응시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른 결론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의 결론으로 추론을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과정들이 적절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주어진 영어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정책 입안자(델리 정부)와 정책 대상자(델리 시민)의 행동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결과를 [문제 1]에서 분류한 두 유형, 즉 공익과 사익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즉,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공익 증진을 위해 사익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한 정책이 정책 대상자의 과도한 사익 추구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익이 더 크게 훼손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만 한다.

셋째, 제도 시행 초기에는 포상금 지급을 통해 효과적으로 코브라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공익과 사익이 전적으로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는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넷째, 제시문 <다>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에 제시된 여러 내용 중에서 정책 실패의 요인을 제공한 코브라 농부에게 대입 가능한 요소를 정확히 찾아내어 그로부터 유효한 조언을 적절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수험자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러한 추론의 진행을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영어 지문의 번역문]

인도 델리에서 맹독성 코브라의 수가 급증하여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어느 날 델리 정부는 코브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즉, 코브라를 잡아 사체를 가져오면 보상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얼마 동안 이 정책은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 야생에서 코브라를 잡으려고 애쓰기보다 직접 기르는 것이 더 쉽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국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포상금 정책은 폐지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브라 사육자들은 남아 있던 코브라를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키우던 코브라를 야생에 풀어주었고 그 결과 델리에는 당국이 포상금 정책을 시행하기 전 보다 더 많은 코브라가 서식하게 되었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문제 1~3
	성취기준 2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문제 2
	성취기준 3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문제 3
	성취기준 4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 1~3
	성취기준 5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문제 1~3
	과목명 :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 1~3
	성취기준 2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 2 문제 3
	성취기준 3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문제 2 문제 3
	과목명 :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 1~3
	성취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제 1~3
	성취기준 3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제 1~3
	과목명 :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문제 1

과목명 : 실용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2실국02-01]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문제 1~3
성취기준 1	[12실국02-02] 정보에 담긴 의도를 추론하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문제 2
성취기준 1	[12실국02-03]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대상과 상황에 적합하게 표현한다.	문제 1~3
성취기준 1	[12실국03-01]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	문제 2 문제 3

2. 영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 영어		관련
성취기준 1	[10영03-01]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 3
성취기준 2	[10영03-02]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 3
성취기준 3	[10영03-03]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 3
성취기준 4	[10영03-04]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 3
성취기준 5	[10영03-06]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문제 3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물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문제 3

4.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 2
성취기준 2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문제 1~3
성취기준 3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문제 3

2. 자료 출처

교과서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국어	조정래 외	해냄에듀	2020	94~95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visang	2020	184	제시문 (라)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20	198	제시문 (마)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187	제시문 (아)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지상의 모든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게리 폴 나브한	Archive	2011	31~32	제시문 (가)	×
페스트	까뮈	민음사	2015	167-168, 177, 272-273	제시문 (다)	×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EBS	2021	240	제시문 (바)	×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언어와 매	EBS	EBS	2021	82~83	제시문 (사)	×
The Cobra Effect and Land Use (https://mhfd.org/about/blog/the-cobra-effect-and-land-use/)	MHFD	MHFD	2021	-	[문제 3] 제시문	○

5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해야 함 제시문을 두 유형으로 분류함에 있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1) 공익(공동체의 이익) 우선/중시와 (2) 사익(개인의 이익) 우선/중시의 입장을 명시해 분류해야 함 다섯 개의 제시문을 분류 시, (1) 공익(공동체의 이익) 우선/중시 입장에는 (가), (다), (라)를, (2) 사익(개인의 이익) 우선/중시 입장에는 (나), (마)를 배속해 분류해야 함 각 제시문 요약 시, 핵심어를 중심으로 혹은 핵심어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요약하며 요지를 잘 드러내야 함. (1)에 속하는 (가)에서는 러시아와 세상을 되살리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에서는 페스트가 닥친 도시에서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으로 목숨을 걸고 페스트에 맞선 사람들의 이야기, (라)에서는 사익에 우선하는 공익이 있으며,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함. (2)에 속하는 (나)에서는 사익이 보장되지 않을 때 나라의 독립마저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마)에서는 의도적으로 공익을 추구할 때보다 모두가 사익을 추구할 때 공익,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하게 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함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맥락에 유의해 요지를 담은 문장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여야 함 기술 과정에서 적절한 어휘 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 있게 기술되어야 함 	210
문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아)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210

문항	[채점요소]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제시문에 나타난 입장을 [문제 1]의 두 유형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비교해야 함. (사)는 사익을 무시하고 공익만을 추구해 개인이 희생된 사례이고, (아)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익만을 추구해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은 사례임 • (마)와 (바)의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함. (마)는 사익을 극대화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 역시 극대화된다고 주장함. (바)는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다수의 이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소수에 대한 고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사)와 (아) 중에서 (마)와 (바)의 주장에 대해 적합한 반증 사례를 선택하여 그를 바탕으로 (마)와 (바)를 비판적으로 평가함 	
문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영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 글에서 묘사된 정책 실패 사례를 [문제 1]의 두 유형을 중심으로 정책 입안자(텔리 정부)와 정책 대상자(코브라 농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정책의 의도와 결과의 측면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 (다)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에 제시된 여러 내용 중에서 정책 실패의 요인을 제공한 코브라 농부에게 조언할 내용을 자연스럽게 도출해야 함 • 위 과정들이 적절한 어휘 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 있게 서술되어야 함 	280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p>■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마)를 '공익(공동체 이익)'을 우선/ 중시하는 입장과 '사익(개인의 이익)'을 우선/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누고, 제시문 (가), (다), (라)를 전자의 입장으로, 제시문 (나), (마)를 후자의 입장으로 기술한 경우 • 이와 더불어 각 제시문을 요약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p>(1) 공익(공동체의 이익) 우선/ 중시</p> <p>(가) 러시아와 세상을 되살리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종자를 지킴.</p> <p>(다) 페스트가 창궐한 도시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페스트에 맞섬.</p> <p>(라) 사익에 우선하는 공익이 있고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선(공익)을 추구해야 함.</p> <p>(2) 사익(개인의 이익) 우선/ 중시</p> <p>(나) 사익(개인의 이익)이 없다면(보장되지 않는다면), 독립도 의미가 없음(중요하지 않음).</p> <p>(마) 사익(개인의 이익) 추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공익(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함.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게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400자)±10% 이내로 작성됨 </p>
	<p>■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법 오류가 한 두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400자)±1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p>■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섯 개의 제시문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으나 구분의 기준이 되는 핵심어를 다소 불안정하게 표현한 경우 • 각 제시문의 요약 시,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하며 요지를 잘 드러내되, 제시문에 제시된 문장을 과도하

등급		[채점기준]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 동일하게 사용하여 기술한 경우 제시문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기술이 미흡한 경우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주어진 자수(400자)±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의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다섯 개의 제시문을 제대로 분류했지만, 구분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경우 다섯 개의 제시문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일부 제시문의 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섯 개의 제시문을 제대로 분류했지만 제시문의 요약이 부실한 경우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주어진 자수(400자)±2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시문 중 일부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주어진 자수(400자)±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사), (아)의 핵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전쟁의 승리를 위해 병사 개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 (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키우는 소의 숫자를 늘려 공유지가 황폐해지게 된 사례 [문제 1]의 두 유형, 즉 공익 우선 대 사익 우선을 중심으로 (사), (아)의 문제점을 비교하여 정확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사익을 무시하고 공익만을 추구할 때 개인의 희생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아) 공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익만을 추구할 때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마), (바)의 핵심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 개인은 사익만을 추구할 뿐이며, 각자 사익을 충실히 추구했을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이 더 효과적으로 증진됨. 즉 사익의 극대화가 공익의 극대화에 기여함 (바) 전체 가치의 증대, 즉 다수의 이익 증진이라는 명분만 있다면 소수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지 않음 (사)를 근거로 (바)를, (아)를 근거로 (마)를 비판적으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에 비추어 볼 때, (바)의 주장은 공익의 추구를 위해 사익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

등급		[채점기준]
		(아)에 비추어 볼 때, (마)의 주장은 개인의 이익 극대화가 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지는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주어진 자수(500자)±10% 이내로 작성됨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문법 오류가 한 두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주어진 자수(500자)±1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 (아)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제시문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마), (바) 가운데 어느 하나의 주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 (사), (아)에 비추어 (바), (마)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느 하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주어진 자수(500자)±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주어진 자수(500자)±2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면에서 다음 항목 중 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 (아)의 내용을 모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마), (바)의 주장을 모두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 (사), (바)와 (아)와 (마)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함 (사), (아)에 비추어 (바), (마)의 주장 모두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500자)±20%를 벗어나고, 250자 이상이 작성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50자 미만인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3]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영어 지문에서 제시된 정책 실패의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가 답안 전반에 잘 드러나야 함 정책 입안자(텔리 정부)와 정책 대상자(텔리 시민)의 행동을 공익과 사익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를 행위의 의도와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함. 즉, 정책 입안자

등급	[채점기준]
	<p>의 입장에서 공익 증진을 위해 사익을 도구로 사용하였고, 단시간 효과를 거두었지만, 정책 대상자의 과도한 사익 추구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익의 더 큰 훼손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시행 초기에 포상금 지급을 통해 효과적으로 코브라 개체수를 줄일 수 있었다는 데서 공익과 사익이 전적으로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함을 추론해야 함 • (다)의 내용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코브라 농부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을 도출해야 함. 즉 혼자만의 행복을 부끄럽게 여기고,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공동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랑베르의 행동으로부터 코브라 농부에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추론해야 함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600자)±10% 이내로 작성됨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법 오류가 한 두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600자)±1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 의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영어 지문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음 • 정책 입안자와 정책 대상자가 행한 행위의 목적과 결과를 공익과 사익의 관점에서 기술했지만 그 내용이 다소 불충분한 경우 • (다)의 내용을 인용하며 코브라 농부에 대한 조언을 작성했지만, 그 내용이 코브라 농부의 상황과 다소 동떨어진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600자)±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 주어진 자수(600자)±2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문제에 대해 일부 답만을 제시함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항목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600자)±20%를 벗어나고, 300자 이상이 작성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문제의 답과 거리가 멀.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300자 미만인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중심으로 (가)~(마)를 분류하면 공익(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 (다), (라)와 사익(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나), (마)로 분류할 수 있다. (가)는 러시아와 세상을 되살리기 위해 죽음마저 불사하며 종자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다. (다)는 페스트가 창궐한 도시에서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으로 목숨을 걸고 페스트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는 사익에 우선하는 공익의 실체를 인정하며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를 위해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나)의 주인공은 자신의 사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라의 독립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마)는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더 효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공익)을 증진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406자)

[문제 2]

(사)의 사령관은 전쟁 승리를 위해 오장군을 희생시켰다. (아)의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공유지를 황폐화시켰다. 이를 공익과 사익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사)는 사익을 무시하고 공익만을 추구해 개인이 희생된 사례이다. 반면 (아)는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익만을 추구해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은 사례이다. (바)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은 소수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전체의 이익 확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본다. (바)의 주장은 다수의 이익 증진이라는 명분에 따라 개인이 희생된 사례인 (사)에 비추어 볼 때 공익의 추구가 사익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마)는 사익을 극대화하면 사회 전체 이익 역시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개인의 이익 극대화가 공동체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즉, 사익의 추구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장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 (496자)

[문제 3]

<문제1>에 따르면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에 있어 공익 우선의 입장과 사익 우선의 입장이 있다. 텔리 정부는 코브라의 급증으로 안전을 위협 받는 시민들을 위한 공익 차원에서 코브라를 포획 시 포상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사익 추구를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공익과 사익이 맞아떨어지면서 시행 초기에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본래의 공익적 목적을 무시하고 금전적 수입이라는 사익에만 집착하여 왜곡된 방식으로 코브라를 키워 포상금을 받았다. 공익을 위한 정책이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이에 정부가 포상금 정책을 철회하자 그들은 사익의 감소를 피하기 위해 남은 코브라를 풀어주었다. 텔리의 상황은 제도 시행 전보다 악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공익 자체가 위협 받게 되었다.

(다)의 주인공 랑베르는 페스트가 창궐한 도시를 떠날 수 있었지만 혼자만의 행복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에 도시에 남아 함께 페스트에 맞서 싸우기로 한다. 이는 개인들이 모여 공동체가 구성되며, 각 개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공동체의 일원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코브라 농부는 스스로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공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감을 지녀야 할 것이다. (611자)